

대림 제 2주일(인권주일)

제1독서 : 이사40, 1-5.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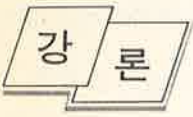
제2독서 : 2베드3, 8-14

복 음 : 마르1, 1-8

순정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마르1,4).



회개의 생활



강명구 신부 / 군중

싸늘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주위 환경들이 한해를 정리하도록 마음을 이끕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를 잘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 2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알리면서 그분을 잘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하고 선포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중심의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성실히 닦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 매순간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애착과 아집에서 변화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지, 교회의 성사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우리들은 회개의 생활은 뒤로 미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의문을 제기

합니다. 이 의문에 오늘 제 2독서인 베드로 후서는 대답을 해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게나 빨리 오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시기에 툭 떨어지는 현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그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자 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시간을 주시게 감사드리며 깨끗한 마음으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를 잘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마르 1,4).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중심의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리

모보일(즈가리아)

조선조 중종 34년 좌의정 홍언필은 “영상과 좌·우 상들이 무능하다.”는 홍문관의 상소가 있자 임금께 신하들의 여론을 존중할 것을 진언하고 주저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아들 흥섬도 중종 36년 찬참관으로 있으면서 “말을 하다가 죄를 당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폐단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언로를 활짝 열라는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개혁정치에 앞장 섰던 조광조도 “언로가 열리고 막힘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림의 판가름이 난다.”고 임금에게 언로를 넓히는데 힘쓰도록 진언했다.

우리 선조들은 일인지하의 군주정치 아래서도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고 훌륭한 임금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인권은 동·서 모두가 가장 소중히 여겼고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불사했는데 ‘아일랜드’에선 종교의 자유 속에 천주교 신자들을 중용치 않는 다른 법을 제정해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등지는 이민사태를 빚었다.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창세기 1, 27).

하느님께서서 빛과 하늘,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과일나무, 낮과 밤, 온갖 물고기와 날짐승, 짐짐승과 길짐승을 만드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빚어 내셨다.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기 2, 7).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완전무결하게 지력과 의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느님의 이 같은 선물은 개인의 특수한 재능이나 배경,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 자체로서 누리는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말한다. 하느님이 주신 평등한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이를 경시한다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라든 빼앗을 수 없다. 따라서 나라마다 절대불가결한 인간 고유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상 종교의 자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의 불가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과거 30년간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런 인간 고유의 권리 자체를 우민화 교육과 언론축쇄 등으로 잊고 살아야만 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맞이한 문민시대에 들어서는 어떤가.

지난달 1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제민간인권옹호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조사단이 한국 인권실태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영국에 있는 본부에 보고돼 연말쯤 전세계에 배포될 이날 발표는 새정부에 대한 국제사면위의 첫 ‘인권평점’이라는 점과 한국에서 처음있는 인권침해실태 발표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과거 군사정권들은 입만 열면 국내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국제사면위의 이 같은 발표를 철저히 금했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이나 재야단체들은 국제사면위의 국내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시민들도 반가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조사단의 대표적인 피엘 로버트 씨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인권침해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인권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평점을 내렸다.

특히 그는 정치범,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가 여전하고 올해들어 50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면서 “인권옹호는 요원하다.”고 못박았다.

스스로 한국문제에 정통하지 못하다고 밝힌 3명이 일부 재야인사들의 안내로 겨우 16일간 조사를 실시해 내린 결론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립절 기간중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모두 제거되고 한 장 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넘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숲정이 산책



교도소를 다녀와서

홍 프란치스카 / 숲정이 성당

인간 범죄의 성서적 연유를 살피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 이래 범죄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러한 죄악을 다스리는 법적 제도 또한 더욱 과학화 되고 발전되어 왔다. 일제 36년의 치육과 광복, 조국 분단과 30여 년의 긴 군사독재, 3당 야합이라는 오욕의 역사 안에서 어눌한 죄를 쓰고 소외받고 경원시 되어 아직까지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오늘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범법자들을 제도적으로 다스리고 교화시킨다는 교도소 안쪽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한 교도소의 행정을 보고 그 나라의 정치이념과 교육목표, 사회복지와 정의실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도소 환경은 열악한 가운데 부정이 난무하고, 교화시키고 전향시킨다는 명분 아래 집단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실이다. 3평의 비좁은 감방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옆에 두고 15명 이상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하는 고통은, "열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한다."는 한 출소자의 고백을 듣지 않더라도 가히 짐작케 한다. 6시에 일어나 작업장에 나가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30분에 점심, 오후 3시30분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때로 잔업까지 해야하는 허기진 긴 밤에 긴급 환자가 발생해도, 그들의 건강을 돌봐줄 상주하는 의사 한 사람 없이 간호사의 처방에 따르거나 병원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대부분 숨져간다. 경찰청과 검찰청을 거쳐 교도소로 배치되기까지 혈연, 지연, 학연, 유전 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형평을 잃은 판결을 받고 구금되어서, 억압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며 신음하다 병들어간다. 금서(禁書)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신문에서 교도소에 관한 모든 기사는 삭제되어 들어오고, 서신 교환의 제한으로 기결수에 한해서만 편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띄우는 것은 1주에 1회로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소자들에게 보다 더 큰 고통과 불안은 출소 후의 생활이다. 구금된 몸이고 독보(獨步)의 권한도 없는 상태지만 그들 나름대로 각자 삶을 모색하고 정서를 잃지 않고자 노력한다. 개설된 서화반이나 문예반에 들어가 취미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신앙생활도 한다. 열악한 환경이고 단순한 기능이나 작업시 기술을 익히며 삶을 준비하기도 하고, 틈틈이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재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출소하여 일자리를 얻고자 해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전국적으로 200

명을 가석방시켜 모기업의 계열사에 실험적으로 취업을 시킨적이 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이 적응하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는 관용과 이해의 온정을 베풀지 못했고 또다시 그들을 좌절케 한 것이다. 비단 양심수나 공안사범이 아닌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죄는 내뺏고 내뺏고 아닌 우리 모두의 탓이며 사회적 환경이 동기를 유발시킨 것이다. 교도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민가협이나 정평위에서 양심수 석방을 추진하고, 교회의 장기수후원회와 일부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무의탁 재소자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출소 후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작은 노력들을 일말시키는 듯한 일부 교도관들의 불법 담배장사로 거액을 챙긴다는 보도(한겨레 신문, '93.11.13. 제 4326호 14면)는 우리를 몹시 암울케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내의 징벌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내려지는 책벌은 수갑을 채워서 독방에 수감시키는 일이다. 하나, 하느님의 책벌은 언제나 용서와 관용이었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교도소 안에서 드리는 미사에 참례한 적이 있다. 죄인들이 하느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전례가 진행되고 예절이 깊어지면서 강론을 하시는 사제의 가르침이 애절하고, 하느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아름답다. 그렇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숨을 주시고, 당신의 인격을 주셨기에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의 사고로 인간을 재판하여 핍박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을 유린함은 옳지 않다. 하느님의 심판만이 옳은 것이기에 비록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어도 그들의 인격도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설정한 열두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에도 교도소의 행정은 감옥소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참다운 교도행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15척 높은 담벼락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차이, 갇혀있는 자들의 애절한 몸짓과 자유로운 자들의 무관심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12 회 인권주일 담화문(요약문)

인간 존엄성 회복은

제 12 회 인권주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자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1994년 국제 연합(U.N)이 정한 '국제 가정의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호소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의 의미가 심히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죽음의 문화'라고 극명하게 경고하시면서 '생명의 문화' 건설을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요,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습니다.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정 공동체가 이기주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풍조로 심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하자는 호소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입니다.

1.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은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20년 넘게 '죽음의 문화'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그 기본 권리가 존중, 수호되어야 합니다. 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보호되지 않는 한 그 밖의 다른 인권을 위한 외침은 자기 모순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가치와 불가침의 생명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엄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하든 불구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의 주체인 것입니다. 연간 150여 만의 낙태, 이토록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조화로운 사회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남녀 성 차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회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회의 법과 제도 차원에서 여러 차별 시책들이 시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인습과 전통에 따른 차별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남아 선호로 인한 수만 명의 여아 낙태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란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성 폭력은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의 직장과 거리 그리고 가정까지도 점점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의 도구화, 인신 매매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들은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법과 제도는 그 목적이 인간을 위한 진정한 봉사에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보다 더 중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상존하는 양심수 문제, 수사 기관에서의 고문, 용공 조작, 구속자 및 수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 중에는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될 농민, 도시 빈민, 노인과 장애자들이 있고, 공해와 방사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개혁 의지를 떠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은 결코 발전이나 개발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온전한 생명과 전사회의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제, 사회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권을 침해하는 모자 보건법을 비롯한 악법과 그릇된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고,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형법 개정인 제 135조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활인기공원

중국 정통의 기제조 건강요법 및 신기공
요법(전문적인 암예방·치료제조공법)지도

채규호(시문)

유선자(아가다)

전주 금암동 금암APT 앞

☎ (0652) 252-6714

자연 동물병원

대동물, 소동물, 각종 질병상담 및 수술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애견용품

이한경(요한)

인후동 안골 사거리

☎ 231-9529(주) 84-6058(야)

호출기 012-678-9529

운장회관

피로연 600석 원비

한광석(아고보)

전민자(울리아)

중앙성당←→한양,목원예식장

☎ 254-753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가정에서부터

4. 노동자들은 결코 생산과 개발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도 안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는 마땅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29일 우리는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는 제하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수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쥐는 임금 체불, 산업 재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비록 불법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인권을 마땅히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가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과학기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한편 수많은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인간 배자를 분할해 인위적으로 일란성 쌍생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경악스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배자 복제'와 '체외인공수정'같은 생물공학의 정도를 넘어선 과학기술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도덕적 양심은 이 거대한 기술 진보에 직면하여 수수 방관하거나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라고 해서, 또 목적이 좋다고 해서 사용되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우상화를 경계하고, 기술과 정보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6. 끝으로 오늘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 주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가정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 교육은 반드시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그 바탕으로 한 마음의 쇄신을 요구합니다. 정의를 위한 교육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공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주님의 이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닦고 고르게 하는 일에 투신합시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정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라는 정의의 절대적 요청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노력합시다.

1993. 12. 5. 제 12회 인권주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요십이 (1058) 김병오



성전건립 기금 마련 성체표 양말 판매

유명메이커 제품 1각 5,000원
연락 즉시 배달

☎(0653)861-7258, 861-3275~6

용인 천주교회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성소자 모임

- 때: 12.12 오전 10시 - 오후 4시
- 곳: 서울 장충동 분원
- 문의: ☎(0334) 74-1251~2
- 대상: 수사신부, 수사 지망 학생 또는 일반인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지매회 성소자 겨울피정

- 때: 94. 1.8 후 2시 - 1.10 후 2시
- 곳: 가평 꽃동네
- 대상: 중학생 이상의 미혼 남녀
- 준비물: 미사도구, 성서, 세면도구
- 문의: (0446) 78-9810~2

축! 확장 이전
정훈 예술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올리아노) 박태연(마르터)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금암동 테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แกน,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일풍소)
☎ 88-7717~8

뿌리를 찾아서 ④1

원평 성당

—나눔을 실천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인근에 금산사, 귀신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로 볼교 계통의 각종 신흥종교(16종파)의 본산지라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교가 산재해 있는 지역에 자리잡은 원평 본당은 성안드레아 김대건(7월5일)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다.

1938년 최재선 신부가 수류 본당에 부임하여 면사무소 소재지인 원평에 성당건립의 타당성을 전망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교하기 시작하여 공소가 발족되었다. 그 뒤 신자수가 증가하면서 공소가 발전하다가 6.25사변으로 신자들은 거의 흩어지고 말았다. 1957년 김제 본당 주임신부였던 고 김제덕 주교 재임 당시 원평에 성당대지를 매입하고 1960년 김반석 신부가 수류 본당에 부임하여 원평 공소에 강당과 사제관을 신축하고 1주 간격으로 수류와 원평에 각각 머

물면서 사목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 1월 수류본당 김병엽 신부 재임시 본당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본당 공동체는 1980년 1월부터 성당과 부속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성당신축위원회를 발족, 12월에 성당신축 기공식을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이듬해 9월 중지되고 말았다.

다시 성당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본당 소유의 일부 토지를 매각하여 공사를 시작했고, 1982년 7월5일 성당과 사제관의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본당은 사목협의회와 평신도 단체를 구성하여 선교활동과 대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는 예비자 방문과 인도, 반

모임을 통한 외교인 또는 비신자들과의 접촉을 벌이는 한편 대사회활동으로는 1982년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있다. 또 유아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서울 대교구 한강본당과 자매 결연을 맺고 도시본당과 농촌본당간의 나눔을 실천해나가고 있으며, 본당 소유의 1,500여평 토지에 과수원(배밭)을 조성하여 이익금으로 부족한 본당재정에 충당하고 있지만 생산되기까지의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5대 최용준(안토니오) 신부가 사목을 맡고 있다.

명상의 자리

예 지

바늘구녕만한 예지를 바라면서 사는
자의 설움이여
너는 차라리 부정한 자가 되라
오늘
이 험벗은 거리에 가슴을 대고
뒤집어진 부정이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너의 벗들과
너의 이웃사람들의 얼굴이



바늘구녕 저쪽에 떠오르리라
축소와 확대의 중간에 선 그들의 얼굴
강력과 기도가 일체가 되는 거리에서
너는 비로소 겸허를 배운다.

바늘구녕만한 예지의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이여
나의 현실의 메에뜨르여
어제와 함께 내일에 사는 사람들이여
강력한 사람들이여……

동신 인삼사

인삼 25호, 꿀 도매

송은자(실비아)

전안 전북인삼조합 내 수상센터

☎ (0655)33-4533(사)

(0655)32-9188(자)

자동차의 모든것 월드카 인테리어

이충석(살레시오)

김미자(실비아)

우아동 신역로타리 해금장 옆

☎ 72-5173, 73-0534

전품목 50-40% 할인 판매 생활용품 할인매장

혼수품(한국·동양도자기, 리빙스타 냄비)
주방기구,선물,건강식품,각종 행사용품

이덕열(야고보)

손순례(아녜스)

☎ 71-6749

축! 확장 이전 한성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감리, 건축상담

한성수(디오니시오)

전북은행 노송저점 뒤 세진빌딩 401호

☎ 87-9585~6 FAX 83-9166

교 구 소 식

- ❖ **자선주일 제2차 헌금**
· 때 : 12월12일(일)
·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 **참사회**
· 때 : 12월9일(목)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 **나운동 성당 기공식**
· 때 : 12월5일(일) 오전10시
· 주례 : 이병호 주교
- ❖ **성서 특강**
· 때 : 12월13일(월) 9시30분-4시
· 곳 : 전동 성당 교육관
· 강사 : 이병호 주교
· 준비 : 성서, 필기도구, 중식
- ❖ **고3 학생을 위한 피정**
· 때 : 12월11일-12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문의 : 85-0041(교육국)
- ❖ **빛두레 신앙인 학교**
· 때 : 12월6일(월) 오후7시
· 곳 : 전동 성당 교육관
· 주제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 강사 : 이병호 주교
- ❖ **북전주지구 성가발표회**
· 때 : 12월12일(일) 오후2시
· 곳 : 중앙 성당
- ❖ **가톨릭 사진가회 정기총회**
· 때 : 12월11일(토) 오후3시
· 곳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교구 성소후원회 본당 임원단 모임**
· 때 : 12월9일(목)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 ❖ **예비 신학생 수험생 모임**
· 때 : 12월12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 **창조 질서 보전 사진 전시회**
· 때 : 11월26일-12월12일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평협 정기 총회**
· 때 : 12월12일(일) 오전10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남성 꾸르실로 신청**
· 때 : 94년 1월6일-8일
· 마감 : 12월10일(금)까지
-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 12월6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12월20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구세주
· 내용 :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이야기.

성소모임

-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12월12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12월12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42-4132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2월12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난방과 실내공기

문을 꼭꼭 닫아놓고 생활하기 쉬운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염원은 흡연으로 흡연이 허용되는 사무실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보다 실내 공기 오염도가 평균 1.2-1.6 배나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사무실에서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0ppm이 넘을 때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정상인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협심증 환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등 병세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두통

이나 호흡기 질환, 눈의 충혈, 피부병, 목의 따가움, 만성적 기침 등 실내오염의 피해가 직접적인 건강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실내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의 밀폐식 창문은 통풍식으로 개조하고, 유해 건물 자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하며, 실내 사무기기는 깨끗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무궁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샘이랑 : 은뫼,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샘 : 부엌용(아기샘, 맑은샘)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토)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문구, X-마스추리 전구 도매센터

남문노트사

원수관(아고보)
심경미(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94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남(제일예식장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앞) 253-1411
효자(삼천쌍용APT앞) 221-8331

혼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계끼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성소 후원금 및 교무금 납부의 날.
1. 제대회 임원: 회장-강희자(모니카) 부회장-원옥순(셀루르다) 서기-윤정자(베로니카) 회계-유재간(안나) 2. 세실리아회 임원: 회장-최선자(벨리나) 부회장-유혜란(가타리나), 문하영(스플라스티카) 총무-조분남(세노비아) 서기-이영나(테레사) 회계-이집래(루시아) 3. M.E: 이영관(아오스딩), 서성남(모니카) 수고하시겠습니다. 4. 영세자 단담: 10~11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4. 대림절 사랑의 성금: 본당신부님-10만원. 5. 모임: ①대견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③울뜨레아(12일 장엄미사 후) ④꾸리아(12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금주 청소: 중노6, 8만. 차주 청소: 중노9, 10만.

□ 지난주 봉헌금: 873,060원 □ 교무금: 3,29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판공 성사 일시: 지정된 날에 꼭 성사를 받는다.
· 8일(수) 오후 6시~8시: 테평동, 고사동, 중앙동
· 9일(목) 오후 6시~8시: 진북동, 다가동
· 10일(금) 오후 6시~8시: 완산동, 기타구역
· 11일(토) 오후 3시~5시: 학생
※ 손님신부님 한 분 오십시오. □ 교무금: 1,826,100원
2. 레지오마리에 연속 친목회: 12월9일 오후 8시. 3. 회합: ①구역분과회(7일 오전 10시) ②울뜨레아(7일 저녁미사 후) ③안나회(9일 오전 10시) ④여성분과회(11일 오전 10시) ⑤요셉회(12일 공식미사 후) ⑥꾸리아(12일 오후 2시) ⑦청년회(12일 저녁미사 후) ⑧혜설자 모임(12일 공식미사 후) ※ 성탄 복권 행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전래: 조옥례, 독서-강영진 씨 부부, 봉헌-육종만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8,2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대림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 후원회비 납부의 날.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 주일
3. 판공 및 구역미사: 7일(화)-여두리, 8일(수)-공기, 9일(목)-의암, 10일(금)-서당, 내정. 14일(화)-신홍, 백암. 15일(수)-상신, 원신. 16일(목)-하산, 새장. 17일(금)-수월, 마치.
4. 미사 시간 변경: 판공 성사 기간중 저녁미사 6시30분으로.
5. 다음 주일은 자선 주일: 2차 헌금.
6. 축! 결혼: 신랑-진봉화, 신부-안형숙(헤레나) 12일 1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381,170원(106,820)
7. 차주 전래: 해설-유민순, 독서①유순천 ②오귀남 봉헌-김성수 씨 부부 □ 교무금: 11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대림 제21주일! (인권 주일)
1. 반장회: 12월5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12월5일(오늘) 오후 2시.
3. 자모회: 12월8일(수) 오전 10시30분.
4. 성탄 판공 성사: 12월6일(월)부터 평일미사 전, 후 ※ 12월11일(토) 4시 미사 전, 후부터 손님 신부님 두 분이 성사 주심.
5. 예비자 집중 교리: 12월14일(화)~17일(금) 오후 7시부터.
6. 영세식: 12월18일(토) 저녁미사.
7.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12월9일(목) 오후 7시
8. 전신자 참회 예절: 12월15일(수) 오후 8시.
9. 가정 방문:
□ 지난주 봉헌금: 964,600원 □ 교무금: 1,73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 대림 제2주일
1. 공식미사 후: 사목회, 꾸리아.
2. 매주 수요일 미사: 성당에서 저녁미사 7시30분.
3. 구역, 반장 모임: 12월10일(금) 어머니 미사 후.
4. 환자 봉성제: 12월 11일(토) 오전.
5. 교무금 미납되신 분: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2시: 연속 친목회.
7. 성탄 예술제 출연 희망자 신청바람.
8. 청소 봉사: 5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768,5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1. 금주: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재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③요셉회(후 6시)
2. 돈보스코회: 8일(수) 오후 7시30분.
3. 성심유치원 방학: 10일(금) 오전 10시.
4. 차주: ①자선주일(2차헌금) ②평협 정기총회(전 10시, 본당교육관) ③자모회(전 10시) ④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⑤사목회(후 8시) ⑥성지회-10일(금) 후 8시
5. 레지오마리에 연차 총 친목회: 12월 18일(토) 오후 8시.
6. 성모회 임원 개편: 회장-심경이(마리아) 부회장-박경자(가타리나) 총무-이연숙(프리스카) 서기-심정순(테레사)
7. 글로리아 성가대 발표회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50,8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삼근

- ◎ 다음주 자선의 날: 2차 헌금 준비.
1. 공소 판공 성사 일정: 6일-양생, 으름터 전 10시. 7일-마을리 전 10시. 10일-평촌, 광곡 전 10시. 장소-선정 보고.
2. 본당 판공 성사 일정: 11일~12일. 초: 종교성 매미사 전후. 13일-14, 1, 2, 삼성 강남구역. 14일-3, 4, 5, 16구역. 15일-17, 18, 19구역. 16일-6, 7, 8, 9구역. 17일-10, 11, 12, 13구역. 시간: 전 10시~12시, 후 3시~6시, 저녁 7시~10시.
3. 사목회 삼일 위원회: 9일 저녁 8시 계획서 및 예산안.
4. 구역 반회장 연수회: 7일 전 10시30분 성서 공부(복교식)
5. 고3을 위한 피정: 11일~12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6. 회: 자모회, 빈첸시오-8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0일 후 3시. 성체회-다음 주일, 청년 성가대-다음 주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교무금: 1,504,680원 □ 교무금: 3,426,000원
7. 농민을 돕기 위한 김장 배추 판매: 열 포기씩 더 사기 운동.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사목회장 한병갑

- ◎ 대림 4주간 특강: 육화하는 공동체
특강해 주신 이순성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오후 8시30분.
3. 성가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4. 상품 복권 경품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구역 감사 미사: 7일(화) 오전-황실, 오후-동신, 저녁-윤남. 8일(수) 오후-평화, 9일(목) 오전-서원, 오후-거성 화산. 10일(금) 오후-화산2(B) 저녁-비사벌. 11일(토) 저녁-거성 그린.
6. 성모회, 자모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7. 금주 청소: 화산2(A) 차주 청소-금화.
8. 차주 전래: 박순옥, 한병갑, 독서-봉헌-강금자, 노영석.
□ 지난주 봉헌금: 587,250원 □ 교무금: 1,454,000원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삼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인권 주일)
1. P.E.T.교육: 6일(월) 오전 10:30-오후 4시(어머니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구역 봉사자 피정: 12월8일(수) 오전 10시-오후 4시, 강사-법석구 신부님. 3. 울뜨레아: 12일(일) 저녁미사 후(교육관) 4. 고3 모임: 12월5일(일) 오후 2시(보좌신부님 방) 5. 초등부 교사 정기 총회: 12월13일(일) 6. 성모회: 12월8일(수) 오전 11시. * 12월12일 다음 주일은 자선 주일(2차 헌금 있습니다) * 미사 안내: 금주-칼명, 평화의 모후, 차주-셋별, 순교자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90,040원 □ 교무금: 5,60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익도

1. 모임 안내: ①꾸리아 연속 친목회-오후 2시 ②구역분과회-9일(금) 10시 미사 후 ③성모, 성심회-10일(금) 10시 미사 후.
2. 판공 성사: 17일(금) 저녁 7시.
3. 공소 판공: 3일(금) 오후 2시-두현리, 8일(수) 오후 2시-안심리, 9일(목) 오후 2시-상개리, 삼태동. 10일(금) 오후 2시-이서.
차주 모임-울뜨레아, 기우회.
금주 전래: 해설-이종표, 독서①남상우 ②최윤희 봉헌 안내-은용기 부부
차주 전래: 해설-조신옥, 독서①최병수 ②남미경 봉헌 안내-방세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512,920원 □ 교무금: 5,361,000원